

기선제압 고지를 선점하라

■ 범여 대선주자 선거인단 확보 총력전 본경선 향해 좌우... 지지조직 풀가동

오는 20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작업을 앞두고 각 예비후보 진영이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차 관문인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기선 제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예비경선을 통한 본경선 진출자는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 1만명의 1인 2표 투표 50%를 합산해 다음달 5일 결정된다.

또 1만명 선거인단 중 5천명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로 뽑고 나머지 5천명은 모집한 선거인단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로 선발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14일 저녁 경선 대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특보단 워크숍을 열어 '전체 유권자의 3% 수준인 100만명 확보를 목표로 지지조직인 선진평화연대를 총가동하고 캠프 차원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선 대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특보단 워크숍을 열어 '전체 유권자의 3% 수준인 100만명 확보를 목표로 지지조직인 선진평화연대를 총가동하고 캠프 차원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모든 조직을 선거인단 확보에 투입하는 한편 이미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 영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론주도층 및 정치인사들 사이에서는 '손학규 대세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 대세론을 위한 이벤트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년 동안 다져온 조직이 최대 강점인 정동영 전 의장 측은 25개 권역별로 전국조직화한 국민통합추진부와 평화경제포럼 등을 중심으로

1인당 1천명의 지인을 선거인단으로 유지하는 '천지인' 캠페인에 들어가는 등 역전을 단단히 버리고 있다.

26일까지 50만명을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정 전 의장은 또 장전형 전 민주당 대변인과 장세환 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광주·전남 및 전북 언론특보로 '수혈'하는 등 호남 공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친노 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의원 등은 열린우리당에서 신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된 승계당원(선거인단의 30%)들을 주요 공략 타깃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지층이 겹치는 것이 고민이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이미 시·도·군 단위까지 조직화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곽에서는 지지모임인 '광장'이 버팀목이다.

이 전 총리 측은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조직면에서 선봉연, 국본에 비해 앞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팬클럽 '행복한 사람들'의 전국 조직화 작업을 최근 완료한 데 이어 여성단체와 미용사·조리사·간호사 단체 등 여성 유권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내 주 중 경선본부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유 의원 측은 팬클럽 '시민광장'과 자신의 '뿌리'인 개혁당, 참정연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 한창이다.

20일부터 울산, 경남 등 순회도 준비 중이며, 18일 팬클럽 행사 형식으로 열리는 출정식에서 세 과시를 노리고 있다.

전경배 의원 측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정책적 선명성을 내세워 농민·시민단체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김두관 전 행정장관은 유일한 '영남 후보', '동서화합형 후보'를 기치로 영·호남 바다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프간 현지 한국 대표단-탈레반 전화접촉 활발

탈레반, 협상팀에 '재량권' 부여

요구 조건 변경 시사 정부 '의도 분석' 신중

여성인질 2명이 극적으로 석방된 이후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한국 대표단과 탈레반 무장세력 간 전화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나머지 인질 19명의 생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탈레반이 피랍사태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감포로 8명의 우선 석방요구를 협상장에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서 곧 재개될 대면협상에서 나머지 인질 석방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탈레반의 태도변화=한국 대표단과 탈레반 측과의 대면 접촉이 금명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 대변인 격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탈레반 지도부가 2명의 협상팀에 석방요구 대상 수감자의 명단을 변경하거나 그 수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우리 측이 지난번 대면접촉에서 요청했기 때문인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탈레반이 차기 협상과정에서 기존의 수감포로 8명이 아닌 자들도 인질과의 맞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물러선 것은 중요한 태도변화로 보인다.

정부는 대=탈레반의 태도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는 아프간 정부를 상대로 협의가 경미하거나 형기 만료가 임박한 탈레반 수감자들을 사면이나 보석 등 형식으로 조기에 풀어주도록 협조를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인질 19명이 억류중인 아프가니스탄 서남쪽 고도(古都) 가즈니시에 세워진 미나레트 옆을 지난 7일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지나고 있다. 미나레트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이슬람 사원의 뿔뿔함을 의미한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번 대면 협상 때 탈레반 대 표가 "아프간 정부가 유엔한 자세 지원 등을 약속하고 그런 협조를 이미 받아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금명간 재개될 우리 대표단과 탈레반 측과의 대 면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연합뉴스

9년만에 다시 금강산 찾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상회담 큰 성과... 요청 있으면 자문 응할 것”

금강산 관광사업 초기인 1998년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있으면서 금강산을 관광했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9년만의 금강산 관광을 마치고 이번 관광의 소감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중 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 효(孝) 사상이 정말 깊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어른'으로 깊은 존경을 표시하고 대접했다. 북한의 간부들은 당시 김 위원장이 순안공 항에 직접 마중 나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을 순안공항에서 직접 맞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김대중 대통령인 만큼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금강산 방문에서 북측 고위인사로부터 환대받았는데 정상 회담에 대해 들은 얘기는. ▲북측에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가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연합뉴스

- 9년 만에 다시 가본 소감은. ▲ 그동안 우리가 공들였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남북 간 마음속에 있던 장벽들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음을 느낀다. -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주역으로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도 남달라 것 같은데.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과 8·

15 남북 언론사 사장단 방북에 이어 3번째로 자신의 진면목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측과 남측 모두 이번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6자 회담이 바람직하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꼭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관해 조언을 한다면. ▲ 참여정부에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요

청해오면 이야기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모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인상은. ▲ 굉장히 영특했다. 국제정세나 남측의 사정에 대해 험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대화를 하면서도 급세 판단해서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김

풀려난 인질 신촌 세브란스병원서 치료

이르면 오늘 귀국

최근 아프간에서 풀려난 김경자(37)씨 등 피랍 봉사단원 2명이 빠르면 16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도라족 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촌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가족들의 뜻에 따라 김경자(37)씨와 김

지나(32)씨가 귀국 직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측은 이를 위해 내과와 정신과 주치의를 선정했으며, 입원과 후속진료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병원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들은 최근 두 김씨가 돌아온 후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 한 곳에서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세브란스 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세브란스 병원측도 환자 가족들의 요청을 수락한 상태다. 두 김씨는 입원 후 우선 혈액과 소변, 흉부 엑스선 등 입원 환자가 실시하는 기본 검사와 함께 아프간 현지 진료 기록을 토대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株) 행복출판

공식에게 인정받은 오직 최고의 권위와 독자 사랑을 위한 최고의 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직 행복출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출판 1위 한국대표 출판정보회사**

100% 행복출판 (063) 527-3388

RODIN 탁수원 명작 전문매장

로댐갤러리 신제품출시

특별기획상품전시

30%~50% 할인

로댐갤러리 (063) 527-3388